

법 조 인 동 정



서울변협 이찬희 회장,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및 제2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개최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 30분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및 제2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에는 이찬희 회장 등 집행부 임원을 비롯한 회원들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조은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윤대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서상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박청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박중순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 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겸 전국변호사회장단협회의 회장, 조동용 강원지방변호사회장,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이남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신한은행 이재석 본부장님 등 내외빈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찬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10년의 시간 동안 변호사들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여 왔다”며 “창립 110년의 서울회는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가 아닌, 회원 모두의 것이며 언제든지 좋은 의견과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대한변협과 서울회는 회원의 권익 증진과 법조화합,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공통의 뜻을 가지고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돈독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회원 포상으로는 먼저 38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회 제79대 재무이사, 제82대 제2부회장,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성학원 법정감사 등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여 본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법조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정상용 회원이 명덕상을 수상했다.

또 본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 인사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감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을 다한 염형국 회원이 공익봉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본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강종구, 고승덕, 권기수, 김동화, 김세권, 김인철, 김정선, 김현만, 문권천, 문한식, 박수만, 박원철, 백양현, 변득수, 소동기, 신복현, 이남진, 이병돈, 이영석, 이영재, 이원구, 이종오, 이창순, 이한동, 이현범, 전병목, 전석진, 정근, 정인봉, 정홍식, 지철호, 최병선, 최선교, 최성곤, 한광세, 한봉희, 한원규, 황종태 회원에게 백로상을, 김광훈, 양정숙, 이병화, 임상혁, 최태형 회원이 공로상을, 고지운, 문철기, 성승환, 이정훈, 장성환, 장현정, 전별, 최석봉 회원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제23회 시민인권상 시상으로는 2011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장례지원을 시작으로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고립사망자,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추모제를 진행하는 등 우리 이웃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영장례를 위한 정책제안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나눔과 나눔(서현숙 대표)'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